작은 이야기 큰 도리

즐거움의 원칙

류환 역

연변인민출판사

✎작은 이야기 큰 도리

즐거움의 원칙

류환 역

常州大学山书馆
藏书章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朴黎花
责任校对：申芬姬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快乐的原则：朝鲜文 / 黄建华主编；柳桓译.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10.8

ISBN 978-7-5449-1248-8

Ⅰ.①快… Ⅱ.①黄… ②柳… Ⅲ.①故事-作品集-世界-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①I1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69053号

快乐的原则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8.125 字数：168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1248-8 （民文）
版次：2010年8月第1版 2010年8月第1次印刷
印数：1-1,000册 定价：14.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责任编辑：朴黎花
责任校对：申芬姬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快乐的原则：朝鲜文 / 黄建华主编；柳桓译.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10.8

ISBN 978-7-5449-1248-8

Ⅰ.①快… Ⅱ.①黄… ②柳… Ⅲ.①故事-作品集-世界-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①I1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69053号

快乐的原则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8.125 字数：168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1248-8 （民文）
版次：2010年8月第1版 2010年8月第1次印刷
印数：1-1,000册 定价：14.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왕왕 누구나 다 알고있는 큰 도리는 모두 크고 놀라운 사건속에서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리해되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의 중시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작은 일에서도 이런 대도리의 뜻을 보아낼수 있다.

이 책속의 이야기들은 사회, 력사, 종교 등 방면에서 찾아낸것인바 편폭이 짧고 권유, 풍자와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있다.

독자들은 이런 작은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될것이다.

이 책은 언어가 세련되고 내용과 형상이 생동하며 예술풍격이 다양하여 독자들의 열독과 수장에 적합하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차 례

거미의 이야기 ····· 1
생활을 감수하라 ····· 3
원숭이 한마리 ····· 5
국왕이 도를 구하다 ····· 7
관세음보살의 전세와 현세 ····· 9
말을 하지 않는 수련 ····· 11
본능을 불러일으키라 ····· 13
마음속의 밝은 등을 밝히다 ····· 15
금융대사 코폴라의 면접보기 ····· 17
디켄즈의 운명의 전환점 ····· 19
나뽈레옹장군의 수단 ····· 21
경쟁 ····· 22
탐욕의 결과 ····· 24

2 즐거움의 원칙

칼을 가는건 더 많은 나무를 베기 위한것 ····· 26
생사에 관한 생각 ····· 28
큰 지혜 ····· 30
친구 하나 반 ····· 32
인연은 억지로 안된다 ····· 34
렬자가 식량을 거절하다 ····· 36
장의의 계책 ····· 38
예양이 조양자를 찌르다 ····· 42
즐거움의 원칙 ····· 46
유머가 가져다준 지혜와 희열 ····· 50
일점의 차이 ····· 54
만능인 사랑의 마음 ····· 56
"신용" ····· 59
용서는 원한보다 즐겁다 ····· 63
사랑의 꽃은 사철 핀다 ····· 66
깨달음 ····· 68
관을 넘은 로자 ····· 70
작은 일은 참으라 ····· 73
술에 취한 리백 ····· 75
부처는 마음속에 ····· 77
꿈 ····· 80
늘 웃으라 ····· 82
불빛 ····· 85
메아리 ····· 87

남편을 읽다 ····· 89
세 사람, 한쌍의 눈 ····· 92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 94
후원에 대한 감정 ····· 96
리별 ····· 99
아버지가 뭔데? ····· 101
3, 4, 5 ····· 103
차타기 ····· 105
생사관두 ····· 107
사탕 파는 사람 ····· 109
령감 ····· 111
한가지 난제 ····· 113
배후의 눈 하나 ····· 115
운명을 사명으로 ····· 118
전진을 위해 한보 물러서다 ····· 120
좋은 운수 ····· 122
오늘은 무슨 요일? ····· 124
배역 ····· 126
추구 ····· 128
아들의 숙제 ····· 131
다섯잎 라이라크 ····· 133
모성 ····· 136
두 멜대 ····· 138
머리칼 한줌 ····· 141

대화 ····· 143
호흡 ····· 145
사랑을 기다리는 여우 ····· 147
친구를 사귀는 비결 ····· 150
금화살과 연화살 ····· 153
목사의 충고 ····· 155
사랑의 사슬 ····· 158
추억속의 자전거 ····· 162
축하카드를 보낸 사람 ····· 165
동상영웅 ····· 168
아인슈타인과 녀자애 ····· 171
어머니 ····· 175
믿음 ····· 177
생사를 함께 하는 친구 ····· 179
자기를 조심하라 ····· 182
다시한번 산다면 ····· 184
현인과 청년 ····· 186
산책 ····· 188
아들한테 사과하다 ····· 191
침묵은 금 ····· 193
1딸라에 차 한대 ····· 195
꼭 필요한 전화 한통 ····· 197
그를 충분히 사랑한다면 ····· 200
물우에 뜨는 바늘 ····· 202

가장 기쁜 소식 ····· 204
어긋난 한 단락의 아름다움 ····· 206
낯선 사람의 빨간 사과 ····· 210
생명은 꽃바구니 ····· 212
무성의 유언 ····· 216
옛일은 흔적 없고 ····· 219
꽃피는 소리 ····· 224
후회한 장미 ····· 237
참회 ····· 240
도리를 따지다 ····· 242
3대비결 ····· 244
고통을 희미하게 하라 ····· 246

거미의 이야기

폭풍우가 지나간후 한 절반 늘였던 거미줄은 바람에 마구 흩어지고 거미도 땅에 떨어졌다. 거미는 안깐힘을 쓰며 벽에 걸려 휘날리고있는, 이미 볼모양없이 된 "집"을 향해 기여갔다.

평시처럼 거미는 익숙한 벽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으나 벽이 젖어있어 얼마간 올라갔다가는 떨어지군 했다. 그러나 거미는 맥을 버리지 않고 또 우를 향해 올라갔다. 그러다가는 또 떨어지고 또다시 오르고…

한 행인이 이 정경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슬픈듯 중얼거렸다.

"나의 일생도 이 거미 같지 않은가? 분주하게 뛰여다녀도 아무런 소득도 없지."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지나갔다. 그때로부터 그는 날마다 소침해갔다.

두번째 행인은 그 정경을 보더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이 거미는 참 우둔해. 왜 옆의 마른 곳으로 기여오르지 않는거지? 생활속에는 이런 바보들이 적지 않지. 난 명심해야 겠어."

그는 고개를 쳐들고 지나갔다. 그때로부터 그는 사람들과 총명하고 원활하게 사귀게 되였다.

세번째 행인은 쪼크리고 앉아 거미를 한참 바라보더니 감동되여 감탄을 내뿜었다.

"번번이 지면서도 계속 싸우는구나. 거미야, 넌 꼭 성공할 거야! 사람도 이런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있어야 해."

그는 크게 감개무량해하며 떠나갔다. 이때로부터 그는 견강해졌고 또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생활을 감수하라

하느님은 나한테 달팽이 한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나는 달갑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분부인지라 하는수 없이 달팽이와 같이 길을 떠났다.

이것은 간고한 임무였다. 분망한 사업과 생활 속에서 나는 거의 산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냈었다. 겨우 몇걸음 떼고보니 달팽이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있었다. 이 점을 의식한 나는 무척 화가 나서 달팽이한테로 되돌아갔다.

달팽이는 땅에서 힘겹게 기였지만 번마다 겨우 조금씩 움직일뿐이였다.

내가 재촉하고 겁을 주고 질책했지만 달팽이는 미안하다는 눈길로 나를 바라볼뿐이였다. 그 눈길은 마치 "나도 지금 있는 힘을 다하고있는데요." 하고 말하는듯했다.

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끌어당기고 밀고 심지어 발로 걷어차 달팽이는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고 숨

을 헐떡이며 아무 소리 없이 앞으로 기여가고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토록 느렸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무가내라는듯 하늘에 대고 소리쳤으나 하늘은 조용하기만 했다.

이상했다. 왜 하느님은 나더러 달팽이를 데리고 산책하라고 한걸가?

"참! 하느님이 달팽이를 잡으러 갔을수도 있겠어. 그렇지! 그만두자. 어차피 하느님도 관계하지 않는데 내가 왜 관계해."

달팽이는 앞에서 기여가고있었고 나는 뒤에서 혼자 갑갑한 마음을 달래고있었다.

엉? 갑자기 나는 꽃의 향기를 맡게 되였다. 원래는 길옆에 화원이 있었던것이다.

나는 산들바람이 나의 몸에 불어치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아, 원래 밤바람은 이토록 부드러운것이였구나.

가만, 나는 새소리를 들었고 벌레소리를 들었다. 나는 하늘에 가득한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다.

꽃, 바람, 별, 이전에 나는 왜 그것들이 나의 신변에 있었다는것을 몰랐던걸가? 나는 그것들이 다만 머나먼 샹그릴라에만 있는줄 알고 비싼 돈을 팔아야만 볼수 있는줄로 알고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늦추고 눈앞의 멋진 풍경을 마음껏 향수하였다.

그제야 나는 하느님이 왜 나더러 달팽이를 데리고 산책하라고 한것인지를 깨달았다.

원숭이 한마리

한 산에 평범하지 않은 원숭이가 있었다. 힘이나 지혜나 다 출중했고 특히 그는 자비심을 많이 가지고있었다.

원숭이는 매일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뜯어먹었다. 어느날, 그는 평시처럼 나무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먼곳의 깊은 골짜기에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들려오는 구원의 목소리를 듣게 되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을 굴려보았다.

(저 구원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게 틀림없어. 내가 가서 구하지 않게 되면 그는 꼭 죽고말거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골짜기로 내려가 그를 구해야 할것이야.)

그는 결심을 내린후 소리를 따라 갖은 험난을 무릅쓰고 천천히 골짜기로 내려갔다. 과연 그는 수백장이나 깊은 벼랑아래에 떨어져있는 사나이를 발견하였다. 사나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있었는데 며칠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듯했고 숨도 겨우 붙어있었다. 원숭이는 사나이를 업고 풀숲과 암석을 지나 천신만고끝에 산우의 평지에 올랐다. 원숭이는 사나이한테 말했다.

"이 길로 내려가면 마을에 도착할것입니다. 이후에는 조심하고 절대로 험한 길을 걷지 마십시오. 잘 다녀가십시오. 안녕히."

말을 마친 원숭이는 맥이 빠져 나무그늘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갓 구원된 사나이는 지친데다 배가 고파 걸음을 뗄수가 없었다. 이때 사나이는 못된 생각이 들었다.

"난 골짜기밑에서 굶어 죽을번했는데 지금 올라오고보니 아무 먹을것도 없으니 이거 고생 아닌가. 그렇지, 먼저 원숭이 고기를 먹고 목숨이나 구하고보자."

그는 즉시 뾰족한 돌을 주어들고 깊이 잠든 원숭이 머리를 내리쳤다. 아픔과 놀라움으로 원숭이는 잠에서 깨여났다. 이마에서 피가 솟구치고있었다. 자신이 금방 구해준 사나이가 독수를 뻗친것임을 알아차렸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앞에 두고 원숭이는 원망의 마음, 의혹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신 대방의 악심에 비탄의 마음, 련민의 마음이 들었다. 원숭이는 몸을 지탱할 기력이 없었다. 혼미상태에서 그는 여전히 중얼거렸다.

"지금 나는 당신을 구해낼 힘이 없습니다. 래세에 수행하여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을 깨우칠수 있는 재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원숭이는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국왕이 도를 구하다

옛적에 아주 명지하고 또 자비롭고 백성을 아끼는 한 국왕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있었다. 국왕은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재물을 준비한후 포고를 내붙이였다.

"국왕한테 보귀한 교법을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재물을 그한테 줄것이다."

국왕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성의는 신의 세계를 감동시켰다. 신은 국왕이 진심인가를 시험하려고 귀신으로 변하여 왕궁앞에 와서 말했다.

"제가 보귀한 교법을 알고있으니 국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국왕은 그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공손히 내전으로 불러들여 교법을 전해주기를 청들었다. 그러자 귀신이 갑자기 뾰족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